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방문 형태와 진단 일치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박진영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회전근 개 파열 환자로 진단된 환자에 대하여 본원 방문의 전원 양상과 질환의 진단 일치도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2002년 1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내원한 6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320명, 여자가 37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2세 이었다. 회전근 개 파열이 없는 충돌 증후군 환자 406명중 83명(20%), 회전근 개 파열 환자 289명중 149명(52%)에게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내 전담은 162명으로 38명(23%), 원외 전담은 254명으로 96명(38%), 자가 방문은 279명으로 98명(35%)에서 수술을 하였다. 원내 전담 중 가정의학과가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외 전담은 정형외과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비율은 원내 전담에서 재활의학과(100%)와 비뇨기과(100%)가 높았으며, 원외 전담은 보험회사(100%), internet(50%), 가정의학과(50%), 정형외과(44%) 순이었다.

진단의 일치도는 원내 전담은 응급의학과(100%)와 내과(7%, 류마치스 내과 100%), 정형외과(45%) 만이 일부에서 일치하였다. 원외 전담은 정형외과(38%), 신경외과(25%), 방사선과(20%), 내과(7%), 일반외과(6%) 이었다. 오진은 원내 전담이 구강외과(100%), 통증클리닉(33%), 신경과(10%) 이었고, 원외 전담은 흉부외과(100%), 재활의학과(71%), 내과(50%), 가정의학과(50%), 동양의학(35%) 순이었다.

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 개 파열에 대한 진단명은 일부 과를 제외하고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홍보되고 있지 않았으며 오진률이 높다. 견관절 질환에 대한 홍보는 일반인을 위한 홍보와 함께 아직 의사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